



▲ 조 병 연 소장

아침을 밝히는 태양과 같이 무사고 준공을 향하는 설악썬벨리

— 동광종합토건(주) 설악썬벨리 컨트리클럽 조성공사 —

『하늘의 한편이 별경계 달아오르고, 바다 저편이 흥건히 젖어들자 이글거리는
해망의 한점이 수평선 위로 솟기 시작합니다. 내 조국의 바다를 치고 솟아
나는 장엄한 햇살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밀려가는 파도에 지난 어려웠던 기운을
실어 보내고, 밀려오는 햇살에 희망의 기운을 담아봅니다. 순간적으로 나의 마음
에 희망으로 가득차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일년에 2번 이상은 해돋이를 보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동광종합토건(주) 설악썬벨리 컨트리클럽 조성공사 현장의 조병연 소장이 얼마
전 현장 앞 바다에서 해돋이를 바라보며, 무사고 무재해를 기원하고, 가족과 같
은 현장 근로자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한 말이다.

이처럼 애뜻한 마음이 있어서 일까? 금년 7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지금 무사
고, 무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안전은 믿음과 신뢰, 관심과 대화 그리고 투자

안전은 맹목적이고 강압적이기 보다 지도와 조언에서의 접근이 선행되어야 올바
른 안전문화가 정착된다고 조병연 소장은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행동이 모태가 되어 “믿음과 신뢰”와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현장 근로
자를 포용할 수 있는 “관심과 대화”가 설악썬벨리의 무사고 준공을 위한 밑거름
이 되고 있다. 또한, 무사고가 기업의 이윤이라는 의식으로 과감히 시행되는 “투
자”는 이러한 무사고 현장의 버팀목이다.

현장에서 근로자를 형님처럼, 친구처럼 대하는 안전관리자인 손신명대리의 행동



에서도 상기 논리가 일치됨을 볼 수 있는데 “믿음과 신뢰”, “관심과 대화”가 바로 그렇다.

그리고 과감한 “투자”의 면모는 강풍이 많이 불어오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직 방망을 낙하물 방지망으로 변경·설치하고, 법적 기준을 넘는 4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에서 볼 수 있다.

안전은 기본이라는 말이 맞다

“우리 현장에서는 강압이라는 행위는 없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모든 작업이나 행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건강검진이 그 중 하나이다.

현장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어 안전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화가 되어 동료에게까지 재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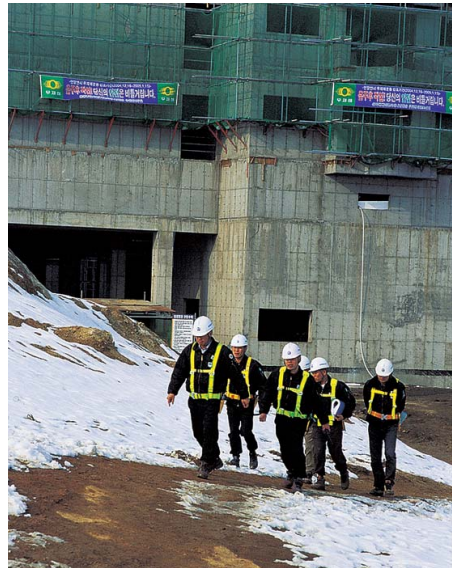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건강검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이다. 그래서 이곳 현장에서는 처음 근로자가 현장에 들어오면 안전교육과 함께, 지정 병원으로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조병연 소장의 말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사항이 특별해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불규칙적으로 현장을 출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출장 병원 차량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속에서도 안전을 지키며 무재해 현장으로 일궈나가는 이곳은 기본의 중요성을 절실히 보여주는 한 예이다.

조병연 소장은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이는 현장에서 주문하는 사항을 100%를 흡수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원동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장 출근 첫날이 안전한 현장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그는 항상 강조한다.


오늘도, 신규 근로자들은 선임 근로자의 이야기를 따라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스스로 병원에 가서 자세한 건강검진을 받는다. 여기에는 열외자가 절대 있을 수 없다.



무사고, 고품질, 품격높은 설악썬벨리

이 밖에도 강풍과 싸우기 위해 모든 컨테이너의 바닥을 앵커로 고정하고, 거푸집도 평소보다 2~3배를 더 많이 밴딩하며, 산으로부터 불어오는 강풍으로 인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등 이중, 삼중의 안전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이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게 하는 예방 안전을 전개하고 있다.

진정으로 안전이 왜 필요한지 알고 있는 이곳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고품질 설악썬벨리 컨트리클럽을 탄생시키기 위해 안전을 기반으로 성실히 수행해왔던 것과 같이 남은 기간에서도 사고 Zero를 위한 마음은 한결같다.

그래서인지 이곳 현장은 오늘도 산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과 폭설 속에서도 계획된 공정과 완벽한 품질로 품격있는 건축물을 만들어 칭찬받는 건설 현장으로 자리 굳힘을 하고 있다.  (최종덕 기자)

